

特殊圖書館大會發表論文

特殊圖書館의 資料整理問題(2)

— 더큐멘테이션을 中心으로 —

司 空 哲

541.05 541.1(051) E:2m

그러면 다시 例問으로 돌아가보자 agriculture는 basic class로 J이고 disease는 isolate로 農學의 facet formula에 依하면 [E]의 番號는 4다. 다른 例를 하나 더 보자. 「Harvesting of Rice in Korea in 1964」란 標題에서 要素語를 가리면 harvesting, rice, Korea, 1964로 된다. harvesting은 [E]의 7, rice는 [P]의 381, Korea는 [S]의 447173, 1964는 [T]의 N64다. 이러한 各 範疇를 排列하는 데는 PMEST로 順序가 恒常 一定하다. 그러므로 agriculture=J, rice=381, harvesting=7, Korea=447173, 1964=N64로 된다. 그러나 各 範疇를 結合시키기 위하여 記號가 必要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다.

DC의 文學形式區分이 여기에 包含되는데 아라비아 數字앞에 ,(comma)를 친다.

例 : English Fiction

DC	UDC	CC
823	823-3	0111,3

b. Time Isolate

年度뿐만 아니라 地球의 公轉과 自轉에 依한 四季, 晝夜, 氣候를 나타내고 있다. 例를 들면 「Rainfall in the winter of 1959」에서 rainfall은 表上 U2855, Winter는 time isolate의 n7, 1959도 time facet로 N59다. time facet의 結合記號는 .(dot)이므로 위의 例는 U2855.N59.n7이다.

c. Language Isolate

DC나 UDC에서 볼 수 있는 言語區分이다.

d. Space Isolate

DC나 UDC의 地理區分이다.

CC는 體系的 分類表와는 全然 다른 facet 分類表인 關係로 十進體系에 익숙한 人們에게 appeal될 지의 心스러우며 어려운 用語와 複雜한 notation 때문에 理論을 充分히 理解하고 自由스럽게 驅使하게 되기까지는 熟練과 깊은 研究를 要하게 됨으로 오늘날까지 使用의 數가 늘어나지 못하는 理由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CC에서는 PMEST의 順序가 一定하므로 統一性이 있고, 表式化되지 않은 助記性 例를 들면 「動物의 病理」 K:4 「家畜의 疾病」 KX:4 「植物의 病理」 I:4에서와 같이 疾病을 意味할 때는 恒常 4를 助記性으로 使用하고 있으며, 複合主題의 結合에 있어 UDC보다 要素的 概念의 表現이 明確한 點과 展開方式에서 Octave Device 등은 從前의 分類法에서 볼 수 없는 特徵이라 하겠다. 1957年 CC의 原理와 理論이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에 發表되자 여러나라에서 CC의 理論이 成功의으로 立證되고 있듯이 그 獨特한 理論體系가 分類學上 새로운 注目을 이르고 複合主題의 結合을 巧妙하게 表現한 것은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고 뒤늦은 感이 있으나 우리도 많은 研究가 있어야 하겠다. (18面に 繼續)

基本的 範疇	結合 記號	Facet 記號
Time	.(Dot)	[T]
Space	.(Dot)	[S]
Energy	:(Colon)	[E]
Matter	;(Semicolon)	[M]
Personality	,(Comma)	[P]

5個의 範疇에 該當하는 isolate前에 結合記號를 놓으면 된다. 처음 例는 J:4이고 다음것은 J381:7.447173.N64로 된다.

위의 例들은 한 範疇內에 하나의 isolate만이 있는 境遇이지만 두個以上일 때는 -(hyphen)으로 結合한다. 이것을 Auto Bias Device라고 한다. 例를 들면 「Secondary Education for Girls」는 T2-55로 된다. 또 「Mathematics for Engineering」과 같이 special topic속에 包含되어 있는 primery topic의 關聯性은 O記號로 結合한다. Mathematics for Engineering」은 BOD로 된다.

C. 助記性 記號

各類에 共通으로 使用되는 助記性 記號로는 다음과 같다.

a. Common Isolate

DC- 形式區分에 該當하는 것으로 alphabet이 이체 小文字로 되어 있다.

例 :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DC	UDC	CC
----	-----	----

1. 국민학교의 예산이 자율경비보다 국, 도비가 많은 것은 64년도에 本道の 教育委員會가 국민학교에 도서관 연구지정학교를 設定하였던 때문이다.

2. 그러나 학생 1인당 할당액이 64년도 보다 년 7전 정도 밖에 증액되지 않은것은 지정학교에 맡겨졌던 연구주제(시설없는 국민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활용)에 나타난 것과같이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워보려는 방침에 연유 한 것이라 하겠다.

3. 중학교의 학생 1인당 할당액이 64년도에 비해 연 3원 56전이 증액된 12원40전이 되며 고등학교가 학생 1인당 93원31전이 증액된 211원 22전이나 갑자기 늘어난 것은 대개의 중·고등학교가 월 평균 20원 정도의 자체 도서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를 비롯한 수원시의 몇 몇학교가 도서관을 새로 시설하고 있어서 대폭적인 시설비와 그리고 도서관 형태를 갖지 않은 학교의 도서비 까지를 포함 시켰기 때문이다.

4. 도서관 총 예산액의 13.5%가 국, 도비인데 반하여 82.6%를 자율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본도의 학교도서관이 행정적으로 의면 되어진채 소리 없이 자라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5. 고등학교의 도서관 예산이 학생 1인당 연평균 200원 정도를 받고는 있다고 하지만 학교별로 보면 국민학교가 2원 66전, 중학교가 12원40전, 그리고 전체 학교 도서관의 실태로는 학생 1인당 연평균 15원13전이 라는 극히 불만스러운 실정이다.

### 맺는 말

1965년도의 우리 도내 학교 도서관이 예년에 비해 별로 괄목할 만한 발전은 없었다고 하겠으나 몇몇의 우수한 학교들이 새로이 바람직한 도서관 시설을 갖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앞날이 기대되며 뒤늦게나마 새로운 분야로서도 당무자들의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어 수개의 훌륭한 학교도서관이 탄생할것으로 크게 기대되는 바다.

아울러 이와 때를 같이하여 작년 11월에 창립을 본 본도지구협의회에서는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도당국의 협조를 얻어 년내에 실시할것을 계획하고 있는등 본도에도 학교도서관 붐이 북전에 닥아오고 있다는 반가움을 갖게하는 것이다.

(濟物浦高等學校司書教師)

(14面에서 繼續)

### VII. 情報의 蓄積

蓄積은 願하는 여러가지 觀點에 따라 模索(retrieval)에 應하기 위해 二次情報化하여 一定한 位置에 記載保管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蓄積手段으로서 標題索引과 抄錄記를 들 수 있는데 前者는 單位面積에 많은 量을 蓄積할 수 있는 것이 長點으로 「Chemical Titles」가 좋은 例다. 後者는 많은 情報中 比較的 重要な 것만을 蓄積시키는 것이다.

1958년에 發表된 科學技術文獻을 보면 5萬種의 雜誌에 200~300萬件의 論文이 發表되었고, 6萬의 單行本, 美國한나라의 政府刊行物이 15萬件, 特許 出願件數가 7萬을 넘고 있으며 英國의 科學技術省은 앞으로 一世紀동안에 現在보다 12~24倍나 될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으니 必要한 情報를 迅速正確히 檢索한다는 것도 큰 問題이나 情報源의 保管上에도 問題가 되어 近者 文獻全部 또는 一部分만은 寫眞으로 蓄積하였다가 code로 檢索하는 FLIP(Film Library Instantaneous Presentation)와 MIRACODE(Microfilm Information Retrieval

Access Code) 方法이 考案되었으니 情報管理의 機械化에 놀라운 發展을 이룩한 것이다.

### VIII. 맺는말

以上 더큐멘테이션에서 整理에 關한 部分中 概要만을 더듬어 보았다. 이미 言及이 된 일이지만 處理過程이 自動機械化된 先進國에 비하면 우리 現實이 거기에 到達하기에는 遑遠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學術研究의 基礎가 되는 것은 單行本보다도 定期刊行物의 記事 學術研究報告書 등이 보다 무거운 比重을 찾아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지만 資料選定에도 이점에 重點을 두는 한편 新着刊行物의 記事를 拔萃하여 分野別로 分類한 索引目錄을 部內에서 打字 또는 謄寫版으로 作成하여 利用者에게 補給하면서 資料利用法을 直接 案內해 주므로서 우리도 一步一步 前進할수 있는 始發點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끝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圖書館)